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12.



I . 출장 개요

□ 출장 배경

-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으로 점차 심화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마련 필요

* 1인 가구 비중: ('19) 30.2% → ('20) 31.7% → ('21) 33.4% → ('22) 34.5% → ('23) 35.5% → ('24) 36.1%

** 고독사 사망자: ('20) 3,279명 → ('21) 3,378명 → ('22) 3,559명 → ('23) 3,661명 → ('24) 3,924명

- 새 정부 국정과제 91-3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이 포함되어 정책 범위가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

□ 출장 목적

-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회적 고립·고독대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정책 및 관리방안 모색

* (일본)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 발표('21.12월),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제정('23.6월), 고독사·고립사 연간 통계 발표('25.4월) 등

□ 출장기간 및 출장국

- (출장기간) 2025.12.02.(화) ~12.05.(금)
- (출장국) 일본

□ 출장자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 명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과장	우경미
	보건사무관	정진경
	행정사무관	배성진
	전산사무관	박진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가희
	부연구위원	김지민
	전문연구원	오다은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	황재영

□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12.2(화)	청주 (RF032 /09:45)	도쿄 (RF032 /1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이동(한국 → 일본) 	
	17:30~19:00	도쿄돔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내 고독·고립 정책 방향 논의 정책 방향, 사업 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고립 해소 방안 등 논의 	井口 健一郎 (이구찌캔이찌로)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12.3(수)	11:20~12:00	社会福祉法人 立川市社会 福祉協議会 (다치카와시 사회복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등 사전 논의 	이은심 교수 (쇼와여자대학교)
	13:10~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고독·고립 예방 사업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단절없는 상담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성과 	大平 武彦(오다이무이치) 외 협의회 관계자, 이은심 교수 (쇼와여자대학교)
	16:10~17:30	足立区 (아다치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도 아다치구청 지역의 힘 추진부의 고독·고립 제도 전반(사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유대감 조성사업 개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 최근 이슈와 향후 추진방향 등 고립 제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 	澤田 健二(사와다겐지), 橋本 太郎(하시모토타로) (아다치구 지역의 힘 추진부)
12.4(목)	10:30~12:00	厚生労働省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노동성 사회원조국 지역복지과 (社会・援護局 地域福祉課) 고독·고립 대응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률, 제도 도입 및 경과 고독·고립 관련 예산, 통계 고독·고립 중점계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지원체계, 정보시스템 운영 최근 이슈와 향후 추진방향 등 	미나미타카노리 실장, 菅野 史佳(스가노후미야) (후생노동성 지역복지과)
	14:00~16:00	内閣府 (내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각부 고독고립대책추진실(孤独・孤立対策 推進室) 고독·고립 제도 개선 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방향, 사업 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고립 해소 방안 등 논의 	堀江 典宏(호리에 노리히로), 今橋 知宏(이미하시 토모히로) 외 고독고립대책추진실 담당자
12.5(금)	도쿄 (RF032 2/1255)	청주 (RF032 /15: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이동(일본 → 한국) 	

※ 현지 기관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국외 출장 계획안과 일부 일정 변경됨

II. 출장 내용[일정 순]

❶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특성 및 고립·고독정책 방향의 이해
일 시	12월 2일(화) 17:30~19:00
장 소	일본 도쿄 도쿄돔시티 회의장
참석자	‣ (면담자) 井口 健一郎(이구찌 캔이찌로)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 (출장자) 우경미 과장, 정진경 사무관, 배성진 사무관, 박진균 사무관, 김가희 연구위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오다은 전문연구원, 황재영 센터장

□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전환 방향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 개호(장기요양), 장애, 정신보건 등 대상별·제도별로 분절된 종적 구조로 발전
- 최근에는 제도 간 경계를 완화하고 생활 단위에 맞춰 연계하는 횡적 구조로 전환하려는 단계에 진입, 이러한 전환은 기존 제도의 폐지가 아닌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대응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 '15년 이후 노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일정 수준 정착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논의 진행

□ 중앙-지자체 관계와 사회보장심의회의 역할

- 일본 사회보장심의회는 정책 집행이나 지자체 사업 조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논의를 수행하는 자문·심의 기구 성격
- 일본은 지방자치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표준적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설계와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

* 지자체 간 경쟁이나 평가·포상 중심의 관리 방식보다는 전반적 평준화와 자율적 조정이 중시됨

□ 고립·고독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

- 일본에서는 고독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 차원으로, 고립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구조적 문제 차원으로 구분하며, 정책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감정 상태보다는 구조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예방에 있음
- 또한, 최근 고립 문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공유
- 치매 노인, 정신장애 자녀, 발달장애 손주 등 다문제 가구 사례 증가로 개별 대상 보호에서 벗어나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적 접근 모색
- 일본 사회보장 논의의 전제로 노동 유지가 강조되는데, 해고를 최소화하는 대신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잔존을 유도함으로써 중·장년층 고립 문제가 일부 해소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운영 방식

-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경로당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 지역 거점 공간(노인 살롱, 지역 살롱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해당 공간에서는 여가 활동뿐 아니라 청소, 쓰레기 배출 등 일상 생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활동은 자원봉사 또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 보상 형태로 운영
-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 아동, 청·중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
-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정·연계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지와 담당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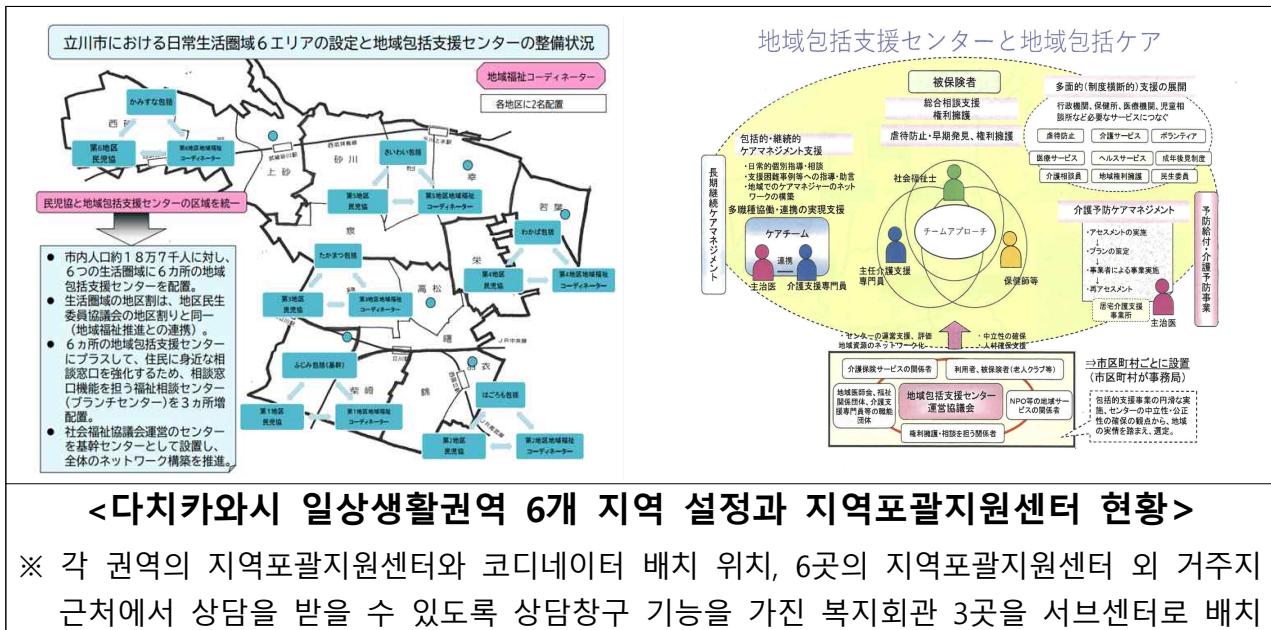
②	(사)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고독·고립 현황 및 예방 사업
일 시	12월 3일(수) 11:20~12:00(사전 미팅, 시설 라운딩), 13:10~14:40(간담회)
장 소	社会福祉法人 立川市社会福祉協議会(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이은심 교수(쇼와여자대학교), 橋本 正明(하시모토 마사아키) 회장, 大平武彦(오다이라타케히코) 사무국장 외 협의회 사업담당자 ▶ (출장자) 우경미 과장, 정진경 사무관, 배성진 사무관, 박진균 사무관, 김가희 연구위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오다은 전문연구원, 황재영 센터장

□ 기관 및 지역 개요

- 다치카와시는 도쿄도 중앙부 다마지역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8만 7천 명, 고령화율은 24.7%
- 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
 - 지역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시·정·촌 단위에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 체계의 일부로서, 행정과 주민,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지역복지 추진

□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개요

- 다치카와시는 고령화 문제와 고립 예방을 위해 지역 포괄 지원 센터(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를 핵심 거점으로 운영
- 차량으로 30분 반경, 인구 2만~3만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6개의 일상생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1개소씩 총 6개소의 센터를 배치
- 생활 권역의 지역 구분은 민생위원 협의회의 지역 구분과 일치시켜 민생위원(국가 지정 봉사자 개념), 사협, 케어매니저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
- 간호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위원/치프 케어 매니저의 3개 직종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다치카와시 센터에는 평균 5~6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
- 다치카와시는 지역복지 추진을 위해 각 지구에 지역 복지 코디네이터 2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여 커뮤니티 소셜 워크를 수행



〈다치카와시 일상생활권역 6개 지역 설정과 지역포괄지원센터 현황〉

※ 각 권역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배치 위치, 6곳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외 거주지 근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 기능을 가진 복지회관 3곳을 서브센터로 배치

□ 지역포괄지원센터 주요 기능

○ 종합 상담 지원(원스톱 서비스*)

* 노인들의 개호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문제를 상담하고 아웃리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며, 3개 필수 직종이 상주하여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으로 돌리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권리 옹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소비자 피해(노인 대상 사기 등) 예방 및 대응, 판단 능력 저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네트워크 구축) 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비보험 제도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

□ 고립사 및 고독 예방 활동

- '12년 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자택 사망, 고령 어머니와 딸의 자택 사망 등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見守りシステム)을 구축
 - (지켜보기 핫라인(見守りホットライン)) 24시간 365일 접수가 가능한 전용 전화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 (민간 협력 네트워크(Mima Mori)) 가스 회사 등 113개소의 민간사업자 및 지역 활동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겸침 중 가스 사용량이 없거나 일상 활동 중 이상을 발견하면 시에 통보하는 지켜보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조금만 도와주는 자원봉사(ちょこっとボランティア))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간단한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작은 도움' 형태로 지원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지역 연결 만들기) 마작, 체조, 식사회, 남성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주제의 만남의 장소를 개설하여 자연스러운 서로 지켜보기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치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포함
 - (집합 주택 관리) 고립사 증가 및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는 집합 주택(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켜보기 간담회'를 실시
 - (전문가 자원봉사 연계) 지역 내 20개소의 방문 간호 센터들의 자발적인 연계 활동으로 시작되어 지역 약국의 약사, 간호사 등 자원봉사 형식으로 집합 주택 등에서 건강 상담회를 진행
- 이러한 과정에서 감시하는 분위기가 아닌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안테나숍 운영
 - 다치카와시가 주도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고립 예방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역 내 상점가(상점가)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점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이 외출하고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 및 안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상점가가 지역 주민의 '안테나' 역할을 하여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
 - 지역안심센터
 - 지역안심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과 성년후견 관련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기준으로 상담 416건으로 성년후견 관련 상담이 2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일본 사회의 현안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입원이나 입소, 재산 관리 및 사회 서비스 이용 계약 등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약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남아, 해결방안 모색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민생위원 참여율이 점차 저조하고 사회적인 연대감이 약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미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③	도쿄도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일 시	12월 3일(수) 16:10~17:30
장 소	足立区(아다치구청)
참석자	▶ (면담자) 澤田 健二(사와다겐지) 계장, 橋本 太郎(하시모토타로) 과장(지역의 힘 추진부) ▶ (출장자) 우경미 과장, 정진경 사무관, 배성진 사무관, 박진균 사무관, 김가희 연구위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오다은 전문연구원, 황재영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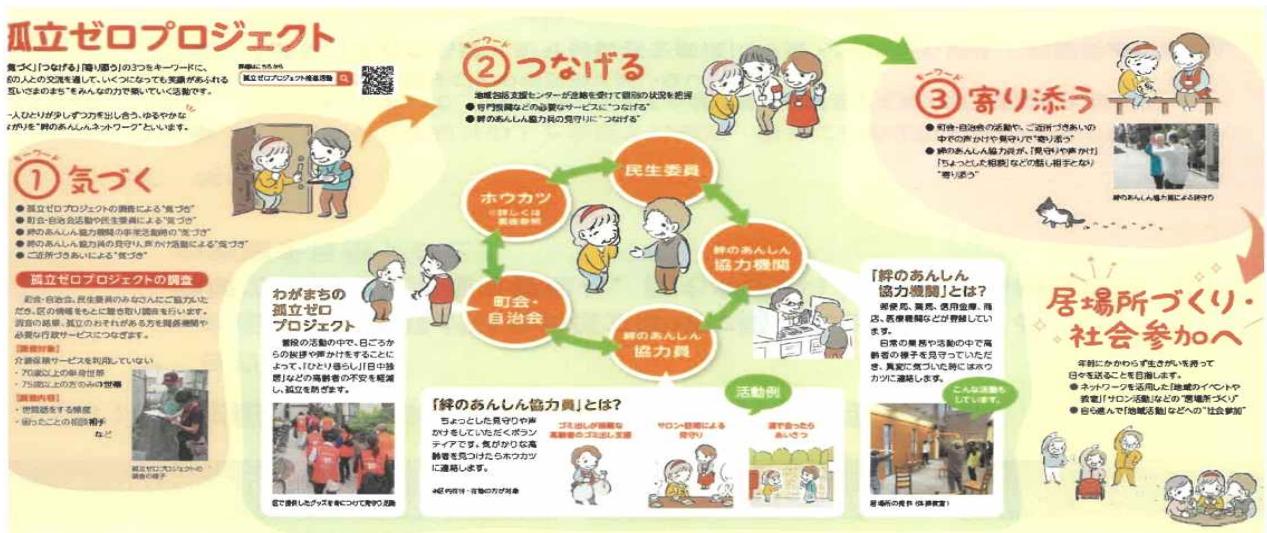
□ 아다치구 개요 및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 배경

- 도쿄도 아다치구는 인구 약 70만 명(2025년 4월 기준)이며, 고령화율은 24.03%로 도쿄 23구 평균(20.3%) 대비 높은 수준
- 아다치구는 혈연, 지연(커뮤니티), 사연(사회생활 인연)의 단절 심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10.7월 구내에서 30년 전 사망한 고령자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 대두
- '지역의 힘 추진부'를 신설('11년)하고, 고립 전담 조직인 '유대 만들기 담당과'를 발족('12년)하였으며, '아다치구 고립 제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13년)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고립의 조례상 정의

- 아다치구는 조례를 통해 '고립' 상태를 정의
- * 일상생활에서 세대 이외의 사람과 10분 정도의 대화를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하거나, 혹은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상대가 없는 경우

<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



※ 고립 제로 프로젝트 ① 알아차리기(気づく), ② 연결하기(つなげる), ③ 곁에 있어주기(寄り添う)

□ 고립 제로 프로젝트

- 고립 제로 프로젝트는 ① 알아차리기(気づく), ② 연결하기(つなげる), ③ 곁에 있어주기(寄り添う)의 3단계 구조

- ① **알아차리기 (조기 발견):**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최근에 이웃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경우 등 주변의 이상징후를 눈치채는 경우로 지자체, 민생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활이 걱정되는 사람을 찾아내고, 상담·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
- ② **연결하기 (자원 연계):** 지역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과의 지원 체계로 '연결'
 - * 민생위원, 지역포괄지원센터, 동네 자치회, 유대의 안심 협력원, 유대의 안심협력 기관이 연계되어 수행
 - 안심협력원은 동네 이웃의 작은 이상을 조금 신경 써서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
 - 안심협력기관은 상점, 병원, 음식점, 우체국, 금융기관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가게가 협력기관이 됨. 일상 속에서 주민의 변화를 느끼면, 필요한 경우 민생위원이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결

- ③곁에 있어주기 (관계 형성): 유대의 안심 협력기관(지역내 가게·병원·사업소 등)이 가벼운 고민·생활 곤란에 다정하게 다가가 돋는 것을 의미
- 거점 만들기, 사회 참여로 누구나 편하게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산책·식사·취미 활동 등을 통해 '고립되지 않는 마을'을 목표로 함
- 또한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키워서, 누구도 외톨이가 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지향

□ 고립프로젝트 추진 상황

○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2025년 3월)

- 40,236세대(71.7%)가 고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립 위험군(A)은 5,998세대(10.7%)로 나타남
 -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단신 세대 및 75세 이상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총 56,074세대(69,043명)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지원(구 내 25곳)

- 동네 회·자치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방문 시에 불안이나 고립이 걱정되는 사람에 대해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이 개별 방문하여 상담
-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나 지역사회의 활동, 또는 유대의 안심 협력원에 의한 안부 확인 등으로 연결

○ 기타활동으로는 우리마을의 고립제로 프로젝트(155개 단체), 유대의 안심협력원(1,316명), 유대의 안심 협력기관(1,229개 단체)의 활동

□ 고립사 현황

- '23년 기준 아다치구의 고립사 발생 건수는 474건으로 증가 추세
- 특히 여름철(7월~8월)과 겨울철(12월~1월)에 고립사가 증가하는 경향
 - 최고기온 35°C 이상인 날의 고립사 평균 발생 수는 약 2.3명으로, 다른 기온대에 비해 높은 수준

- 겨울철에는 일교차(12°C 이상) 시에는 고립사 위험 1.3배 증가
- 상황별 고립사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취침 중이 가장 많으며 (21.4%), 입욕 중(12.0%)이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음
- 특히 입욕 중은 겨울철을 중심으로 12월~3월에 증가 추세
- 남성의 고립사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사망 후 발견까지 경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 남성 고립 대책 및 성과

-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듯, 남성의 고립, 고독사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구에서는 고립된 고령 남성을 위한 특화된 살롱 운영
- 참가자들이 '생활에 리듬이 생겼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성과가 있음
- 일부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최신 뉴스와 이야기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장'을 제작하는 등 활동이 자발적인 연계 활동으로 발전

□ 아다치구 고립·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 원칙과 특징

- 그 밖에 유대강화, 사업의 홍보, 열사병 또는 히트쇼크 예방의 계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 실태조사 결과 고립 위험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복지 프로그램 정보만 제공할 뿐, 강제로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
- 아다치구는 지역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특성화된 사례로 평가
- 국내 · 외에서도 현지사례 조사를 위한 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④	후생노동성 고립사 대응 정책 및 현황
일 시	12월 4일(목) 10:30~12:00
장 소	厚生労働省 (후생노동성)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미나미타카노리 실장, 菅野 史佳(스가노후미카) 주사(社會・援護局 地域福祉課, 사회원조국 지역복지과) 외 1인 ▶ (출장자) 우경미 과장, 정진경 사무관, 배성진 사무관, 박진균 사무관, 김가희 연구위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오다은 전문연구원, 황재영 센터장

□ 일본 사회의 복지 과제와 단독가구 비중 확대

- 총인구는 '20년 약 1억 2,615만 명에서 '70년 약 8,700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0년 28.6%에서 '70년 약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계
- 단독세대 증가로 단독세대 비율은 '25년 약 40.1%로, '50년에는 약 4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 중 고령자 단독세대 비율은 '25년 약 14.2%에서 '50년 약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공생사회(地域共生社會) 실현 정책

- 인구 감소, 고령화, 단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존 사회보장 체계만으로는 생활 전반의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대두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재구축하고,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과 기능을 가지며 상호 지지가 순환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지역공생사회」를 정책 기조로 설정
- (추진 원칙 및 시스템) 기존의 수직적(고령자, 아동, 장애인 중심) 복지 시스템을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예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복지 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통합적 거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아동, 장애인, 고령자 서비스가 결합된 '다기능 포괄적 거점'을 설치하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 상담과 지원을 제공

□ 단독세대 확대와 주거 불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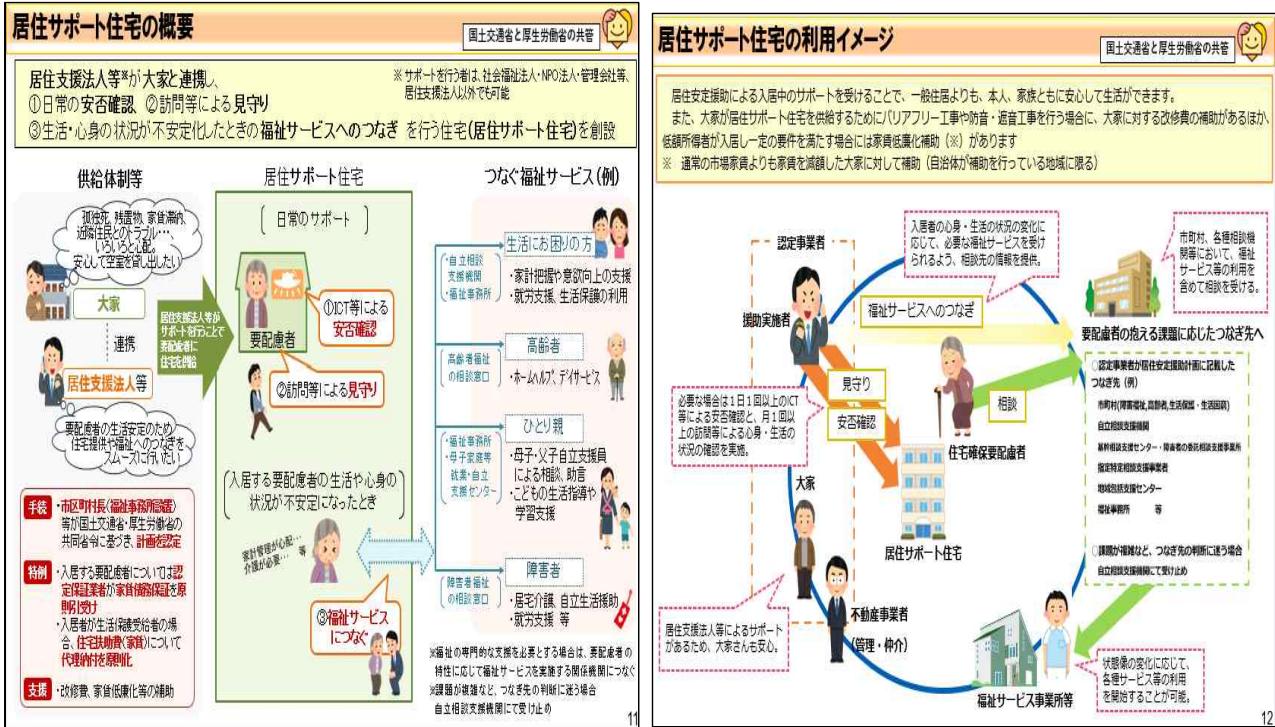
- 독거노인 증가와 함께 주거 불안 문제가 고립·고독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에 대해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강함
-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입주 거부 비율은 고령자 약 70%, 장애인 약 70%, 저소득자 약 50% 수준임.
- 이러한 거부의 주요 배경으로는 임차인 사망 시 주택이 '사고물건'으로 인식되어 이후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 한편 전국의 공실 주택 수는 약 900만 호이며, 이 중 임대용 공실은 약 443만 호로 주택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제도적·심리적 장벽이 문제

□ 주거 지원 강화

- 후생노동성은 주거 안정을 고립·고독 예방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 세이프티 네트워크법」 개정을 통해 주거 확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 개정 내용에는 입주 전, 입주 중, 퇴거(사망) 시까지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 포함
- * 법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이며, 일부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일부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거주 서포트 주택은 거주 지원 법인 등이 집주인과 연계하여, 입주자의 안부 확인과 생활 상태 확인 수행
 - 필요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주택으로 시·구·정 촌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한부모가구 등

- 입주 중에는 ICT를 활용한 안부 확인과 방문을 통한 확인이 병행될 수 있으며, 생활이나 건강 상태 변화가 확인될 경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고령자·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

< 후생성 주거지원 주택 개요 >



□ 고립·고독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접근 방식

- 후생노동성은 고립·고독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정의를 설정하기보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지역과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고립과 고독은 개인의 인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
 - 일본의 고독·고립대책은 기존 서비스 예산 내에 연계되어 집행하고 있어 고독·고립대책 예산을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 않음
 - 내각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과제에 대응

⑤	내각부 고독고립대책 추진 현황 및 정책
일 시	12월 4일(목) 14:00~16:00
장 소	内閣府(내각부)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堀江 典宏(호리에 노리히로) 참사관, 今橋 知宏(이마하시 토모히로) 주사, 吉田 康祐(요시다 코스케) 실무책임자, 土井 陽介(도이 요스케) 실무책임자(孤独・孤立対策推進室, 고독고립대책추진실) ▶ (출장자) 우경미 과장, 정진경 사무관, 배성진 사무관, 박진균 사무관, 김가희 연구위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황재영 센터장

□ 외로움과 고립의 개념 및 사회적 배경

- (외로움) 주관적 개념으로, 혼자 있다고 느끼거나 외로움을 인식하는 상태
- (고립) 객관적 개념으로, 사회·지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 (주요 배경) 사회구조 변화*, 코로나19 유행, 대면 소통 감소 등

* 단독가구 증가, 근무 방식 다양화, 인터넷 보급 등으로 인해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연결'이 약화 됨

□ 주요 현황 통계 (2024년 조사 기준)

- 외로움과 고립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은 만 16세 이상 20,000명(무작위 표본)으로 '21년부터 매년 실시, '24년 제4차 조사
 - (외로움 경험) 국민의 약 40%가 고독감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별 특징을 보면 외로움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대(7.4%)와 30대(6.0%)에서 가장 높음
- (아동 자살률) 아동 자살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4년에는 529명으로 사상 최고치
- '50년까지 전체 가구의 44.3%가 단독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및 특징

○ 추진 체계 정비 (법적 기반 및 정부 협력 강화)

- ('21년) 외로움 및 고립 대응 담당 장관 임명('21.3월, 내각관방장관 겸임), 외로움 및 고립문제 해결대책을 위해 활동하는 NPO 지원 시작
- ('23.5월)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제정
- ('24.4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법정부 추진본부 설치
- (매년 5월) '고독·고립 대책 강화의 달' 운영

○ 외로움 및 고립 방지 조치에 관한 기본 정책

- 외롭거나 고립된 상태에서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구축
- 생활에 맞춘 원활한 상담 지원 제공
-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사람들이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생성
-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하는 NPO 및 기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민간-NPO간 협력 강화

○ 정책적 특징

-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결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
- 공공, 민간, NPO 간의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민관 협력 플랫폼이 설립되었으며, 약 600개 이상의 조직이 회원으로 참여
- 상담 다이얼: "외로움과 고립 상담 다이얼(9999)"을 전화, 이메일, 채팅으로 운영
- 보조금 지원과 우수 사례 개발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여 지역 내 대면 관계 구축을 위한 지역 공공-민간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노력을 의무화
- NPO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부금을 마련하고 지원(60억 엔 이상)

□ 최근 발전 방향 및 중점 과제 (중장기 대응)

○ 법 기반 우선 계획 개정 ('25년 5월)

- 총리가 이끄는 진흥본부는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계획 수정을 결정함
-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학생 자살률에 대응하여, 다양한 소속 공간 조성 및 동행 아동 지원체계 구축 등 아동의 외로움 예방 이니셔티브 촉진
-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단독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외로움 및 고립 예방 이니셔티브를 촉진

○ 장관 프로젝트 팀 보고서 핵심 내용 ('25년 7월)

- (소속감 및 역할 부여) 일상생활에서 '재미있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 '역할', '턴', '의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민간기업 역할) 민간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직원 간,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
- (노동세대 준비) 은퇴 후 외로움과 고립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노동 세대의 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 구축 준비가 중요

□ 내각부 및 관계기관 역할

- 내각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총괄 및 조정을 담당
- 구체적인 대응책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데, 아동 관련 업무는 아동가정청에서, 은둔형 외톨이 등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
- '21년 민관협력 플랫폼 사업 시작 당시에는 관련 NPO가 거의 없었으나 사업 시작 후 복지 관련 NPO들이 참여하여 현재 약 600개 단체*가 활동

* 아동 식당, 어르신 은신처 만들기 등의 기관들이 플랫폼에 참여

III. 시사점

□ 시사점

- 일본은 사회구조의 변화(1인 가구 증가, 근무방식 다양화, 인터넷 보급 등), 코로나19 등으로 연결이 약화하면서 사회문제인 고독·고립 대응 필요
- '21.2월 내각 관방에 고독·고립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4.4월 고독·고립대책 추진법을 시행하여 고립을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법제화
- 일본은 민간 비영리단체(NPO)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내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는 상향식 방식을 활용

고독·고립 대책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중점 계획

2025년 개정 포인트

- 2024년 4월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2023년 법률 제45호) 시행, 동년 6월 법에 근거한 중점 계획 수립.
- 법 시행 후 1년간 내각부에서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지방공공단체·NPO 등의 지원 및 고독·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또한, 유식자 회의 및 관민 협력 플랫폼에서도 논의를 거듭해 왔다.
- 본부 산하 고독·고립 대책 추진 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협의회, 관계 기관 등 (NPO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점 계획 개정안을 추진 본부에서 심의하였다.

① **현행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② **현재 직면한 과제·중장기적 과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점 계획을 개정**(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 결정)

① 2024년도 계획의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 추진 강화 및 지속적 중점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반 지원 및 NPO 등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서, 현장의 노력과 과제를 포함한 수평적 확산 노력을 추진한다.
- '연결 서포터'의 추가 보급을 시작으로 고독·고립 상태 예방을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
- 목표 설정의 우수 사례 수평적 확산 등을 통해, 중점 계획에 정한 시책의 증거 기반 평가·검증을 통한 추진을 추진 등



② 현재 직면한 과제·중장기적 과제 등 → 새롭게 중점 추진 사항에 포함시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대책 추진.

【현재 직면한 과제】

✓ 초·중·고등학생 자살자 수 역대 최다

- 2024년(레이와 6년)은 529명으로 역대 최다.
- 여중·여고생을 살펴보면 여중생·여고생 모두 증가하는 현황



- 아동관이나 프리 스페이스, 어린이 급식소 등 가정도 학교도 아닌 다양한 거처 마련, 아동·청소년의 고민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동반 지원 체제 구축, 지역에서 교육이나 복지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 구축 등, 아동·청소년의 고독·고립 상태 예방을 위한 추진.

【중장기적 과제】

✓ 미래의 1인 가구·1인 고령 가구 증가 전망

- 고독·고립 위험을 안고 있는 분들도 증가할 전망
- 독신 세대 수가 향후 증가하여 2050년도 44.3% (추정)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현역 세대를 포함한 독신자 등의 고독·고립 상태 예방 및 사회와의 연결을 상실하여 고립사(孤立死)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거처·연결망 구축' 등 중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고독·고립 상태 예방을 위한 노력 추진.

✓ 고립 사망자 수 추정: 약 2만 2천 명

- 표 「경찰이 처리한 시체 중 자택에서 사망한 1인 가구」 중 생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사후 8일 이상」 경과한 경우.

이 외에도 취업 빙하기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지원 및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력 추진

등



① 전문가 면담(井口 健一郎(이구찌 캔이찌로)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일시: 12/2(화) 17:30~19:00)



② (사)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방문(일시: 12/3(수) 11:20~14:40)



③ 도쿄도 아다치구 방문(일시: 12/3(수) 16:10~17:30)



④ 후생노동성 방문(일시: 12/4(목) 10:30~12:00)



⑤ 내각부 방문(일시: 12/4(목) 14:00~16:00)